

“가을빛 물든 광양, 망덕포구·배알도서 힐링을”

운동주 시인 숨결 깃든 정병욱가옥
수변공원 모래사장 어싱 명소 '주목'
의병장 활약상 담은 선소기념관도

광양시가 북적이는 도심에서 벗어나 힐링할 수 있는 가을 여행지로 섬진강이 바다와 만나는 망덕포구와 배알도 섬 정원, 진월 조선수군지 선소기념관을 추천했다.

22일 광양시에 따르면 550리를 흘러온 섬진강이 바다와 맞닿는 망덕포구에는 시인 운동주의 육필 원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지켜낸 정병욱가옥이 고요히 자리하고 있다.

1925년 양조장과 주택을 겸해 지어진 이 가옥은 생전에 시인으로 불리지 못한 채 스물일곱의 짧은 생을 마감한 무명의 운동주를 세상에 알린 문학적 부활의 공간으로 평가받는다.

가옥 인근의 운동주 시 정원은 '서시', '별해는 밤' 등 유고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수록된 31편의 시가 시비로 세워져 있어 방문객들은 시인의 숨결을 느껴며 사색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포물선을 그리는 포구를 따라 걷다 보면 전어 해마다이더리를 잇는 배알도 섬 정원이 모습을 드러낸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운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진월 조선수군지 선소기념관, 자연과 하나되는 어싱 명소 배알도.



여백의미를 살린 이 정원은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 그리고 별빛처럼 반짝이는 야경까지 어느

시간에 찾아와 감성을 충전할 수 있는 낭만 플랫폼으로 사랑받고 있다.

배알도 섬 정원에서 해맞이 다리를 건너면 최근 모래사장 어싱(접지)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배알도 수변공원이 이어진다.

따뜻한 가을 햇살 아래 맨발로 모래를 밟으며 걷다 보면 부드러운 감촉과 시원한 바닷바람이 어우러져 자연 속 진정한 휴식을 느낄 수 있다.

여정의 마지막 코스는 진월 조선수군지 선소기념관이다.

임진왜란 당시 해상 방어의 요충지이자 군사적 거점지였던 선소의 역사와 조선수군의 발자취를 생생하게 보여주며 목조 트러스 구조의 고풍스러운 건축미와 어영당 정자, 의병장들의 활약상을 기리는 전시로 여행의 의미를 한층 깊게 만든다.

이현주 광양시 관광과장은 "망덕포구와 배알도 섬 정원은 가을의 정취 속에서 자연과 문화, 역사와 휴식이 함께하는 복합 힐링 명소"라며 "깊어가는 가을, 가족·연인과 함께 광양의 포구와 섬을 걸으며 일상의 여유와 감성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화순군,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추진

경기침체 극복 목적...올해까지

화순군은 22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과 납부 유예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를 완화하고 지역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임대료 감면은 군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하며 해당 부서에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감면 특례

기간은 202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감면 요율은 소상공인 1%, 중소기업 3%가 적용되며, 재산정된 임대료 초과분은 환급된다.

또한 임대료 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 최대 1년까지 납부 유예가 가능하고, 연체료는 기존의 50% 수준으로 경감된다.

구현된 화순군 재무과장은 "특례기간 동안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장성군은 최근 열린 '2025 밀라노 도시먹거리정책협약(MUFPP) 글로벌 포럼'에서 '거버넌스 부문 특별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장성군 제공>

장성 '먹거리 정책' MUFPP 수상...세계적 주목

공공급식·로컬푸드 체계 성과

장성군 먹거리 정책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국제 포럼에서 특별상을 받으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22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열린 '2025 밀라노 도시먹거리정책협약(MUFPP) 글로벌 포럼'에서 '거버넌스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밀라노 도시먹거리정책협약(MUFPP)'은 2015년 밀라노 엑스포를 계기로 출범한 국제 협약으로, 현재 84개국 33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장성군은 2023년 가입 이후 먹거리정책 선도 도시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

군은 지난해 'MUFPP 가입도시 초청 워크숍'을 열고 로컬푸드 첨단직매장과 상무대 기계화 학교에서 지역 먹거리 공급체계를 소개했으며, 같은 해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포럼에서도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올해는 MUFPP 참여 도시 중 우수한 정책 성과를 낸 도시를 선정하는 '2025 밀라노 협약상'에 응모해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전 세계 24개 수상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됐다.

군은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으로 지역 내 공공급식 공급 체계를 확립하고 행정·학교·군부대·농협·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먹거리위원회를 운영해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이를 통해 지역 제철 과일의 학교 급식 공급, 군 장병·취약계층 대상 로컬푸드 제공, 농가 참여형 먹거리 네트워크 운영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포럼 현장에서는 '생산자-소비자 직거래'와 '디지털 유통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 사례도 소개돼 호평을 받았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수상은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이뤄낸 성과로, 장성의 먹거리 정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군민의 건강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장성형 먹거리 모델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구례군, 신규농업인 양봉 교육 성료 총 5회 실습...실전 중심 커리큘럼 구성

구례군은 22일 "신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양봉 기초 기술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달 1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신규농업인과 예비 귀농인 20여명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양봉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

교육은 꿀벌의 생태 이해, 계절별 관리 요령(봄·여름·가을), 월동 준비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전 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한 교육생은 "막막했던 양봉 창업에 자신감을 얻었다"며 "현장 중심 교육이 실제 창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양봉은 초기 투자 부담

이 적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라며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순천 그린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중투심 통과

320억원 투입...2028년 운영 목표

기업 집적화·정책 지원 체계 구축

순천시가 추진 중인 '그린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22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320억원이 투입되며 2027년 준공 후 2028년 초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는 승주 옛 다목적회관 부지에 조성되며 현재 기존 건물 철거가 진행 중이다. 완공 후에는 바이오 관련 기업의 입주공간과 연구시설, GMP 생산시설, 회의실, 편의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센터는 중심으로 기업 집적화 및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해 그린바이오 산업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옛 승주군청 부지의 '균형발전 300' 사업과 연계해 원료 조달 소재 개발 제품화 유통·수출로 이어지는 원스톱 전주기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완성할 방침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투자심사 통과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며 "그린바이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순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켜겠다"고 밝혔다. /순천=정기 기자

여수시 민원 서비스 시민 만족도 '긍정적'

전 항목서 '만족' 비율 ↑...소통행정 강화

여수시 22일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민원 서비스 품질 개선과 시민 중심 행정 실현을 위해 추진됐으며 응대 태도, 설명의 이해도, 처리 노력도, 처리 기간의 신속성 등 총 9개 항목에 대해 여수시민 패널 870여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모든 문항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항목별 평균 비율은 '만족' 63%, '보통' 30%, '불만족'은 8%로 나타났다. 특히 '전반적인 민원 처리 만족도'는 '만족' 61%, '보통' 30%, '불만족' 9%로 조사돼 시

민들이 민원 서비스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시는 복합민원 현장 공동 처리제 운영, '시민의 소리' 운영 등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다양한 소통행정을 지속 추진하며 민원 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국민신문고 시스템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온라인 민원 접수창구인 '여수신문고'를 임시 개설해 운영하며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공무직 여수시 시민소통담당관은 "모든 민원을 시민의 목소리이자 시정 발전의 출발점으로 여기고 있다"며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며 친절한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고흥군 '아침밥 먹고 건강하게 성장하세요'

고흥쌀로 만든 샌드위치 등 제공

학생 건강·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고흥군은 22일 "전날 고흥중학교 입구에서 '우리 쌀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열고 학생들에게 든든한 아침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사진> 행사에는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모락모락봉사회, 고흥중학교 학부모,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해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했다.

참석자들은 학생들의 활기찬 하루를 응원하며 쌀빵 오믈렛 샌드위치, 음료, 과일을 직접 나눠줬다.

특히 식단에 고흥쌀을 활용한 메뉴를 구성해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알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는 의미를 더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아침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학생 건강과 지역 농업 발전을 함께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학생 건강과 지역 농업 발전을 함께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